

# 經濟危機時代의 經濟問題들

李 亨 純

〈高麗大學校 教授·經博〉

## 第 2 의 經濟危機란

經濟學의 歷史를 돌이켜 보면 아담 스미드가 『國富論』(1776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攝理를 펼친 이래 經濟學의 正流가 흐르고 있고, 이 正流를 가지고서는 解明할 수도 없고 처방할 수도 없는 異端의 現實이 나타나곤 한다.

經濟學의 正流란 다름아닌 自由競爭만 있으면 한 나라 經濟는 마치 물흐르듯이 萬事형통하리라는 이른바 「市場萬能主義」를 말하며, 그 후 「보이지 않는 손」의 自由競爭의 論理를 구체화시킨 것이 「세이의 法則」이었고, 時代가 흘러 今世紀에 오면 프랑스의 L. 왈라스나 英國의 A. 마야설은 自由競爭의 經濟論理를 「完全競爭」이라고 부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經濟學의 正流에 흐르는 이른바 「市場萬能主義」란 自由競爭만 있으면 한 나라 經濟의 可用資源은 最適의으로 配分되어져 失業者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所得分配의 公正性을 깨치는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 않아 그야말로 가장 理想的인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經濟學者들은 「完全雇傭均衡」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現實의 資本主義經濟에서 失業(景氣의 下降局面)이나 인플레이션(景氣의 上昇局面)이라는 景氣變動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 資本主義經濟는 어떠한었는가.

이러한 經濟學의 正流를 가지고서는 解明할 수 없고 처방할 수 없는 異端의 現實이 30년 내지 60년의 週期를 가지고 나타났다. 1810년대에 D. 리카도가 문제삼았던 分配문제, 1840년대에 J.S. 밀이 문제삼았던 貧困의 문제, 1870년대에 K. 맑스가 문제삼았던 勞動者階級문제 등 資本主義經濟의 現實을 훑어보면 거기에는 그 時代마다 經濟問題(economic issues)들을 안고 있었지만 1930년대에 나타난 大不況과 大量的 失業問題는 經濟學의 正流를 가지고서는 解明하고 처방할 수 없는 그야말로 異常現象이 아닐 수가 없었고 새로운 J.M. 케인즈 經濟學의 등장을 촉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時代가 안고있는 經濟問題란 어떠한 것인가. 2次大戰 이후 美國을 위시하여 先進資本主義經濟는 30년대의 不況時代와는 달리 好況과 인플레이션의 時代를 맞이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휘어잡기 위하여 緊縮政策을 쓰면 不況이 深化되고 不況을 打開하기 위하여 케인즈的 擴大政策을 쓰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加速化된다. 이렇게 緊縮과 擴大政策이 번갈아 가면서 「stop and go」政策이 취해지는 가운데서 70년대에 들어오면 不況과 인플레이션이 重症化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그야말로 既存의 어떠한 經濟理論을 가지고서도 解明할 수도 없고 처방할 수도 없는 異常現象이 나타난 것이다.

1971년 12월 英國의 J. 로빈슨 女史는 美國經濟學會의 Ely 講演에서 마침내 「經濟學 第

2의 危機說)을 제창하게 되었다. 로빈슨 女史가 말하는 第2의 危機說이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經濟危機를 말하는데 第1의 經濟危機는 30년대의 大不況과 大量的 失業問題를 말하는 것이다.

30년대에 등장한 케인즈 經濟學은 不況과 失業이라는 資本主義經濟의 景氣變動의 下降局面을 理論적으로 解明하고 政策적으로 처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2次大戰 이후 不況과 失業에서 好況과 인플레이션으로 資本主義의 經濟環境이 변모하게 되자 케인즈 經濟學에 많은 修正이 加해지게 되었지만 원래 「不況의 經濟學」으로 출범한 케인즈 經濟學은 인플레이션을 치유하는데 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50년대 후반부터 M. 프리드먼이 주도하는 通貨主義理論(monetarism)의 反革命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그 동안 「케인지언」(Keynesian)과 「머니타리스트」(Monetarist) 사이에서 論爭이 전개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머니타리즘」을 강렬하게 뒷받침하는 이른바 合理的 期待形成學派(rational expectation school)가 등장하여 마침내 케인즈 經濟學은 어느 經濟評論家가 論評했듯이 모스크바를 눈앞에 두고 철수하는 나폴레옹의 揮下將軍과도 같이 여태까지 巨視 經濟學에서 차지해 온 主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第2의 經濟危機時代를 맞이하여 經濟理論의 危機란 무엇이며, 解決해야 할 經濟問題란 무엇인가. 우리 韓國經濟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깊숙히 빠져 있는데 우리가 解決해야 할 經濟問題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보기로 하자.

## 케인즈主義와 自由主義의 對決

오늘날 美國에서 케인즈 經濟學을 대변하는 P. 새뮤얼슨은 60년대 초엽 케인즈 經濟學이 全盛期를 맞이하였을 때 “自然은 예술을 모방하고 現實 世界는 드디어 研究室의 世界에 접근하고 있다. 모든 위대함은 새로운 革新에 대한 挑戰에서 온다.” 라고 케인즈 經濟學이 오늘의

經濟學의 主流임을 주장하여 자신에 찬 케인즈의 政策을 역설하였었다.

그런데 최근 수년동안에 「케인즈 時代의 終焉」이라든가 「케인즈 經濟學의 危機」 또는 「케인즈 財政의 破綻」등의 表題가 붙은 책들이 나돌고 있는 까닭은 역시 케인즈 主義가 오늘의 「스태그플레이션」의 經濟危機를 克服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새뮤얼슨은 다음과 같이 솔직히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經濟學者들은 「不況속의 인플레이션」이라는 現代病을 치유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解決策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시된 수많은 對策들은 이 病과 같이 좋지 못한 것들이다. 이러한 까닭에 젊은 經濟學者들 중에서 새로이 등장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두통거리를 混合經濟體制 밑에서 理論적으로 解明하고, 政策的으로 처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노벨 經濟學賞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다” 라고.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수많은 對策들은 이 病과 같이 좋지 못한 것” 이란데가 또는 “混合經濟體制 밑에서…… 노벨 經濟學賞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다” 든가 하는 새뮤얼슨의 表現이다.

우선 수많은 對策들이란 M. 프리드먼이 68년부터 펼쳐온 「自然失業率假說」에서 도출되는 케인즈主義에 대한 批判 그리고 自然失業率假說보다 더한층 라디칼(radical)한 政策처방을 내리고 있는 合理的 期待形成假說를 의미한다. 한편 “混合經濟體制(mixed economy) ………”란 이 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生産에 있어서는 自由競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資源配分の 效率性を 信奉 하지만 所得分配의 公正性を 견지하려면 政府의 介入主義(activism)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美國의 케인지언들이 60년대를 통하여 完全雇傭과 物價安定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제시한 政策提案을 보면 일찌기 J.S. 밀이 資本主義經濟에 대하여 품었던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밀은 “富를 生産하

는 것은 自然의 法則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富의 分配는 社會의 法律이나 慣習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최근 새뮤얼슨은 그의 『經濟學』(11版, 1980년) 序文속에서 밀을 19세기의 위대한 政治經濟學者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經濟學의 課題는 일찌기 밀이 고민했던 生産의 「效率性」과 分配의 「公正性」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차체에 밀이 가졌던 資本主義經濟에 대한 비전의 한토막을 보기로 하자. 밀은 『政治經濟學原理』(1848년) 속에서 “이전의 많은 經濟學者들은 人間이 자기들의 地位를 개선하려고 苦闘하고, ……서로 짓밟고, 넘어뜨리는 것을 人間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運命이라고 보았고, 文明이 進歩하는 途上에서 필요한 한 段階라는 것과 人生의 궁극의 理想狀態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한 다음 “이른바 富가 힘이며, 될 수 있는 한 부유하게 되려는 것이 만인의 야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한, 富를 획득하는 길이 만인에게 차별없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人生에 있어서 最善의 상태란 어떠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더 부유하게 되고 싶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앞질러 달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가 밀려나게 될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論調를 보면 밀이 人道主義者(humanitarian)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美國의 J. 로울즈도 『正義論』(A Theory of Justice, 1971년)을 펴내 밀과 비슷한 分配論을 강조했고, 이것이 美國의 케인지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J. M. 케인즈 자신도 “우리 모두가 오늘(1930년)보다 8배 정도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子孫들은 그다지 큰 戰爭이나 人口가 심하게 증가하지 않는 限, 가난에 시달리는 「經濟問題」란 해결할 수가 있다. 未來를 내다볼 때, 經濟問題란 人類의 永遠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連綿의 思考方式이 美國의 케인지언들에게 영향을 미쳐 60년대에 美國의 케네디 行政政府의 「뉴·후론티아」, 존슨의 「위대한 社會」등의 政策目標

에 나타나게 되었고 케인즈의 社會福祉支出을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큰 政府論」(big government)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머니터리스트들의 經濟思想을 뒷받침하는 新自由主義나 合理的 期待形成學派의 新保守主義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스미드의 「보이지 않는 손」의 經濟論理를 現代化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F. 하이엑크의 『隷從에의 길』(1944년)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1947년 하이엑크는 人間의 自由를 信奉하는 學者들(M. 프리드먼을 포함해서), 知識人들을 스위스의 「몽페루랑」에 모아, 모인 場所의 이름을 따서 「몽페루랑 協會」(Mont-Perlin Society)를 조직하여 그 동안 케인즈의 「混合經濟體制」에서 연유하는 政府의 介入主義(activism)을 반대해 왔고 政府의 非介入主義(non-activism)를 주장해 왔다. 오늘날 케인즈主義에 挑戰을 加하고 있는 머니터리스트들이나 合理的 期待形成論者들은 모두 이 協會의 會員들이라는 점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하이엑크의 自由主義思想을 깊게 그리고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 케인즈主義가 平等主義의 經濟思想에 입각하여 福祉國家論을 流行시켜 온데 대하여 반대해 왔으며, 그 危險性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市民들이 어떤 종류의 필요하고 또 充足되어야 할 일이 한 官僚機關의 排他的인 所管事項으로 되는 경우 그 機關을 民主的으로 管理하면 市民의 自由는 有效하게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幻想이다. 個人의 自由를 지키는데 이것은 해야 한다고 規律을 만드는 立法부와 이 規律의 訓令을 실시하는데 排他的 權力이 주어지는 行政機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分業이야말로 가장 危險한 일이다. 美國이나 英國의 經驗에서도 명백하게 찾아볼 수 있듯이 行政當局이 그 面前에 어느 直接的인 目的을 달성시키려는 熱意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당국은 자신이 해야 할 任務의 초점을 벗어나서 政府가 해야 할 至上目標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을 달성하려는 熱意에 찬 노력앞에서는 憲法上의 制限도 保障

되어진 個人的 權利도 양보해야 한다고 想定하는 것이다. 모든 經驗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이엑크가 얼마나 철저한 自由主義者인가는 최근 經驗論的 自由主義者(新自由主義)인 프리드먼에 대한 비판속에 잘 나타나 있다. “머니터리즘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니터리즘에 매달려 政府의 通貨發行獨占權을 주장하는 者(프리드먼의 通貨供給量의 增加率을 一定率로 固定시키는 安定化政策을 의미함)는 政府에 의한 介入主義者들이며, 自由를 否定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머니터리스트들을 비판하고 그 代案으로 通貨發行權을 自由化하여 民間企業에게 開放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複數의 通貨가 서로 競爭하게 될 것이므로 「良貨가 惡貨를 몰아내서」 온 世界를 괴롭히는 인플레이션을 비로소 克服할 수 있다고 하이엑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오늘의 巨擘經濟學은 「스태그플레이션」의 異常現象을 理論적으로 解明하고 政策적으로 처방하는데 있어서 混合經濟體制에서 오는 케인즈的 介入主義와 철저한 自由主義思想에서 오는 非介入主義가 對立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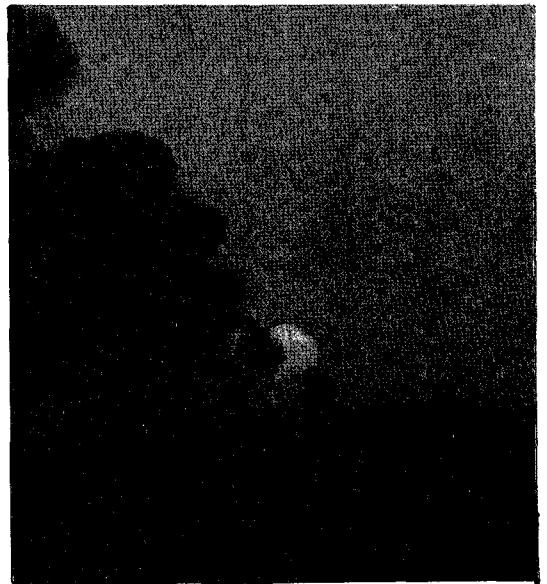
### 스태그플레이션과 오름세心理

1930 년대는 不況의 時代였고 그러한 經濟環境속에서 케인즈 經濟學이 등장했으며 50 년대와 60 년대는 好況과 인플레이션으로 資本主義經濟가 史上類例없는 高度成長을 보이는 한편 케인즈 經濟學도 많이 변모하면서 「成長의 神話」(여러가지 成長理論의 登場)가 支配하였지만 70 년대에 들어와 온 世界는 「스태그플레이션」의 經濟危機時代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經濟危機란 무엇이며 經濟理論의 危機란 무엇인가. 말할 나위도 없이 經濟危機란 높은 失業率과 높은 인플레이션率이 共存한다는 데 있다. 가령 失業率만 높다면 케인즈的 擴大政策으로 한 나라 總需要(消費支出+投資支出)를 증가시키면 實質 GNP가 증가하고 이것을

生産하는데 참여한 經濟主體의 所得을 증가시켜 결국 雇傭量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總需要管理政策이 케인즈 經濟學의 基本的 思考方式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增稅나 政府支出을 삭감하여 總需要를 감소시키는 것이 케인즈 經濟學이 내세우는 인플레이션의 對策인데 美國과 같은 民主主義制度아래서 선거민들의 人氣政策을 써야하는데서 增稅를 해야 할때 그리 쉽게 할 수 없고 政府支出(특히 軍事費支出)도 삭감하기가 어려워 결국 케인즈 經濟學은 인플레이션을 휘어잡는데 無力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리드먼이 펼친 「머니터리즘」이란 무엇이며 「自然失業率假說」이란 무엇인가. 우선 머니터리즘에 대하여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對策과 관련하여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長期的 命題는 通貨供給量의 增加率을 한 나라 經濟의 最適成長率에 맞도록 一定率로 固定(美國의 경우 약 5%) 시키면 나머지 문제는 아담 스미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市場메카니즘」이 언젠가는 失業者에게 일자리를 구해 주므로 失業問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리드먼이 머니터리즘에서 주장하는 長期的 命題란 종래의 貨幣數量說을 現代化시킨 것으로서 通貨供給量의 增加率이 인플레이션率(物價의 上昇率)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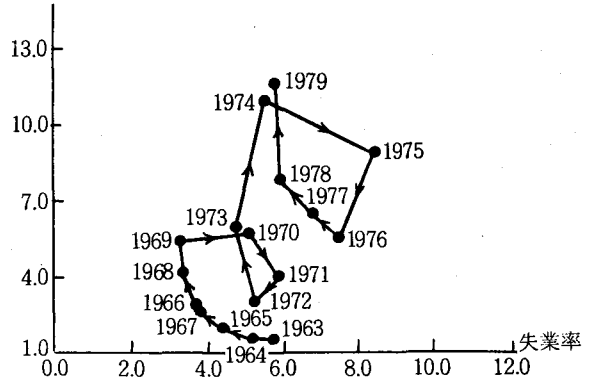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古典派의 貨幣數量說은 通貨供給量과 物價水準은 正比例 관계에 있으며, 一般物價水準을 결정하는 理論이지만 이것을 現代化시킨 프리드먼의 「新貨幣數量說」은 通貨供給량의 增加率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60년대부터 인플레이션 時代에 副應하여 各광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지언들도 그냥있을 세라 우선 인플레이션이 大企業의 獨占이나 寡占企業의 「마크·업」 價格決定에서 오는 「費用引上型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이른바 「필립스 曲線」을 도입하여 完全雇傭과 物價安定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政府의 強렬한 介入主義를 제창하게 된다. 이것이 60년대 초반에 케네디·존슨 行政府에 대거 참여한 케인지언들(특히 M. 오쿤)이 제창한 「가이드·포스트」 政策인데, 이것은 일종의 「所得政策」에 속하며 賃金이나 여러 所得이 生産性上昇率의 範圍內에서 政府가 直接的으로 控制하는 政策이므로 政府의 介入主義를 强하게 표방하는 것이었다.

1972년경의 이야기이지만, 새뮤엘슨은 美國議會議의 合同經濟委員會(Joint Economic Committee)에서 프리드먼과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증언한 일이 있었다. 새뮤엘슨은 그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새뮤엘슨)는 좌측에, 그(프리드먼)는 우측에 앉았지만 결국 우리들은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끝났다. 그 때 「費用引上型 인플레이션」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프리드먼이 끈질기게 주장하므로, 정중한 남자인 나도 이에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記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안다. 프리드먼교수가 발언한 것을 보면 「費用引上型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는가, 「費用引上型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의 美國에서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고 했더니, 윌트가 있는 프리드먼 교수는 곧 말을 받아서 ‘One man과 truth를 합치면 majority(多數意見)가 되는 법이야’하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질세라 ‘One man과 untruth를 합치면 crank(번덕쟁이) 밖에 안돼’하고 말했다’고 한다.

인플레이션率



〈그림-1〉 美國經濟의 필립스曲線

이 對話의 한 토막을 보아도 케인지언과 머니테리스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爭點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원래 「필립스 曲線」이란 英國의 A. 필립스가 英國經濟에서 약 100여년에 걸쳐 貨幣賃金の 上昇率과 失業率사이에서 安定的인 관계가 있다는 經驗的 事實을 밝혀 놓은 것이다. 원래 필립스는 인플레이션을 分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賃金이 勞組의 壓力없이 自由競争을 통하여 勞動市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實證的으로 論證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目的으로 마련한 「필립스 曲線」을 英國의 케인지언들(새뮤엘슨과 R. 솔로우)은 1960년 「費用引上型 인플레이션」이 完全雇傭상태에 이르기 전에 賃金引上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고 보고 貨幣賃金の 上昇率 대신 인플레이션의 上昇率로 대치시켜서 失業率의 關係를 거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物價版 「필립스 曲線」이라고 부르는데 〈그림-1〉을 보면 美國의 「필립스 曲線」은 6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의 上昇率과 失業率의 關係가 매우 安定的이며 〈그림-1〉에서 보듯이 하나의 曲線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지만 70년대 부터는 나선형을 그리면서 上方으로 移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필립스 曲線」이 安定的인 경우 完全雇傭(失業率을 감소)을 달성시키려면 物價安定(인플레이션의 上昇率을 억제)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케인지언의

한 사람이었던 A. 오쿤이「潛在的 GNP」라는 개념을 전개하여 潛在的 成長能力을 희생하는데서 오는 損失을 강조하게 되어 케인지언들은 物價安定의 政策目標보다 完全雇傭을 견지할 수 있도록 成長政策을 밀고 나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成長政策과 존슨 大統領의 「위대한 社會」건설을 위한 福祉支出政策에다 越南戰爭을 위한 戰費調達이 겹치게 되어 60년대 말에 오면 견장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加速化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아래서 등장하는 것이 프리드먼의 「自然失業率假說」이다.

우선 「自然失業率假說」이란 70년대에 들어와 美國의 「필립스 曲線」이 나선형의 「루프」를 그리면서 上方移轉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는 「오름세 心理」를 가지고 설명한다. 오름세 心理란 「앞으로 物價가 얼마만큼 오르게 될 것이냐」하는 未來의 狀況을 過去의 經驗을 통하여 사람들은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름세 心理」란 바로 사람들이 갖는 「豫想物價上昇率」(price expectation)을 말하며, 흔히 「期待心理」라고 한다. 그리고 프리드먼은 「現實의 物價上昇率」과 「豫想物價上昇率」이 일치하는 長期에 있어서는 「필립스 曲線」은 垂直이 되어 인플레이션의 上昇率과 失業率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短期에 있어서 「豫想物價上昇率」과 「現實의 物價上昇率」이 사람들이 갖는 「期待心理」가 빚나가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케인즈의 擴大政策이 雇傭量을 증가시켜 有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長期에 있어서 「豫想物價上昇率」과 「現實의 物價上昇率」이 일치할 때에는 케인즈의 擴大政策效果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加速化시키는 結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프리드먼은 「自然失業率」이라는 概念을 제시하여 이 失業率을 넘어서 失業率을 줄이려고 케인즈의 擴大政策을 쓰면 인플레이션만 加速化시킨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프리드먼이 말하는 「自然失業率」이란 요컨대 「市場에카니즘」을 통하여 결정되는 失業率을 말한다. 따라서 일찌기 케인즈가 30년대에 大量의 失業이

한 나라 經濟에서 有效需要(總需要)가 不足해서 他意에 의해 失業者가 된다는 이른바 「非自然的 失業」(involuntary unemployment)을 인정하지 않으며, 失業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은 모두 「自發的 失業」으로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失業者란 「게으른 사람」(idle man)으로 보는 것이다. 아롱든 케인지언들과 머니테리스트들은 失業의 現象을 어떻게 보느냐에 基本的으로 그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필립스 曲線」이 나선형의 「루프」를 그리면서 上方移轉한다는 것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現象을 의미하는데 프리드먼의 「自然失業率假說」은 이러한 現象을 「오름세 心理」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 政策的 歸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通貨供給量의 增加率을 一定하게 固定시켜 두면 經濟는 不況에서 벗어나 自生的 回復이 可能하다는 이른바 「市場萬能主義」를 信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케인지언들과 머니테리스트들 사이에서 벌어진 論爭은 이렇게 要約할 수가 있겠다. 실제로 失業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하루 빨리 일자리를 찾아 일하고 싶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게 어느 經濟學者(머니테리스트)가 가서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市場에카니즘이 작동하니까 언젠가는(長期에 있어서는) 일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失業者를 위로한다면 그 失業者는 어떻게 反應할 것인가. 「自然失業率假說」이 「期待心理」의 分析武器를 가지고 理論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異常現象을 解明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실은 政策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危機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또다른 經濟學者(케인지언)가 이 失業者에게 가서 「市場에카니즘은 언젠가는 失業을 解消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소 物價가 올라갈지는 모르나 보다 빨리 당신은 일 자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國債를 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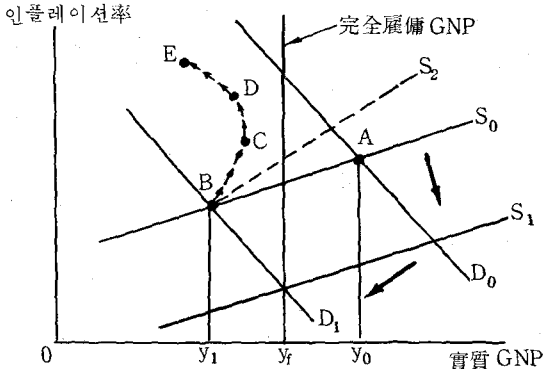
든가 金利를 내리도록 政府에 권유합시다」라고 이 失業者를 卹신다면 이 失業者는 어떻게 反應할 것인가. 실은 여기에 政府의 역할을 肥大化시키게 된 케인지언의 介入主義와 「작은 政府論」을 표방하는 新保守主義의 非介入主義가 現代 巨視經濟學의 論點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아름든 이러한 論爭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케인즈 經濟學은 물론 「머니테리즘」을 포함해서 既存의 經濟學이 너무 지나치게 「總需要爲主의 經濟學」이었고, 따라서 政策手段으로서 總需要管理政策에 지나치게 매달려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背景속에서 최근 등장한 것이 供給重視의 經濟學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經濟學이라기 보다는 오늘의 「스태그플레이션」의 經濟危機時代를 克服하는데 總供給管理政策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데서 그 意義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既存의 케인즈 經濟學은 「머니테리즘」이나 「合理的 期待形成假說」 그리고 「供給重視의 經濟學」의 挑戰을 받고 總需要管理政策(總需要曲線)과 總供給管理政策(總供給曲線)에 사람들이 갖는 「期待心理」를 도입하여 새로운 進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벼랑의 갈림길에 선 韓國經濟

이러한 「期待心理」를 도입한 總需要曲線과 總供給曲線을 가지고 최근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經濟問題를 <그림-2>를 가지고 보기로 하자.

1979년 우리 經濟는 A點에 위치하고 있었



<그림-2> 韓國經濟의 現況分析

다. 말하자면 完全雇傭 GNP( $y_f$ )를 넘어서서 總需要曲線( $D_0$ )과 總供給曲線( $S_0$ )이 交點하는 A點에서 經濟는 인플레이션의 壓力으로 過熱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通貨의 供給量을 급격히 줄이면서 이른바 「安定恐慌」(stabilization crisis) 政策을 취하게 되었는데 總需要管理政策으로 總需要曲線을  $D_0$ 에서  $D_1$ 으로 移轉시켜 總供給曲線( $S_0$ )과 交點하는 B點에서 實質 GNP水準을  $y_1$ 에 견지하게 되어 「安定恐慌」政策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政策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름세 心理」를 꺾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얼마만큼 길게 「安定恐慌」을 이겨내느냐가 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작금 우리나라에서 취해진 低金利政策은 投資를 자극하여 景氣를 活性化하자는데 있지만 低金利政策은 基本的으로 投資需要를 자극하되 金融貯蓄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消費需要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므로 結果적으로는 總需要가 증가하여 總需要曲線( $D_1$ )을 또다시 上方移轉시켜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期待心理」가 가세할 경우 우리 經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깊숙히 빠져 <그림-2>에서 보듯이 B點에서 C點 → D點 → E點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低金利政策이 성공하려면 物價指數上에 나타난 物價安定이 아니라 國民들이 「피부로 느끼는」 物價安定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사람들의 「오름세 心理」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플레이션 무드에 편승하여 企業들이 價格을 올려 總供給曲線이  $S_2$ 의 모양을 하게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오름세 心理」가 작용하여 우리 經濟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빠져 나갈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70년대에 美國의 政策經驗에서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간 日本이나 西獨은 總需要管理政策은 물론 總供給管理政策(未來産業의 育成, 産業構造의 改編, 技術革新 등)을 구사하여 總供給曲線을  $S_0$ 에서  $S_1$ 으로 끌어내리는 政策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저 自生的 景氣回復만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많은 教訓을 주는 것이다. ♣♣